

내년 공공기관 취업 문 넓어진다

한전 등 316곳 1만8518명 선발 계획 올보다 4.8% 늘어 ... 고졸채용도 늘듯

내년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올해보다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가 316개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모두 1만8518명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채용 계획보다 4.8%(846명) 많은 수치다. 공공기관들은 2011년 9538명에서 2012

년 1만4452명으로 신입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뒤 2013년 1만5372명, 지난해 1만7856명을 뽑았다. 올해 채용은 작년보다 184명 줄인 1만7672명으로 계획했지만 1년 만에 신규 채용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86곳의 채용 규모 증가율이 32.6%로 가장 높다. 모두 4959명을 뽑기로 했다. 공기업 30곳은 올해보

다 16.9% 늘어난 4859명을 채용한다. 기타 공공기관 200곳의 신규 채용은 8700명으로 올해보다 11.0% 줄어든다. 내년엔 500명 이상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1250명), 한국수력원자력(914명), 한국철도공사(810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8명), 부산대병원(721명), 서울대병원(667명) 등이다. 병상시설 확충, 변전소·발전소 시설 확대,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 2014~2015년 2년 연속으로 줄었던 고졸 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119개 공공기

관에서 2137명의 고졸 신입 직원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채용 계획(2075명)보다 3.0% 증가한 규모다. 고졸자 채용 규모가 큰 곳은 한전(270명), 한수원(183명), 철도공사(162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명) 등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97개 공공기관에서 872개가 새로 나온다. 올해 시간선택제 채용 규모인 817명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한전(126명), 철도공사(82명), 국민건강보험공단(48명), 서울대병원(48명) 순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규모가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격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약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사반대 ·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공익

광주시의원들 국정화 반대 시위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누리과정 예산 국가지원 공익 이행추구를 위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남·이은방·유정성·문상필·김옥자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김영석 장관 “여수·광양항 종합 항만클러스터로 육성”

여수 낙포부두 리모델링·신복항 사업 내년 본격화 박람회장 올 입장객 300만명 ... 입장료 50% 할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여수 광양항을 종합적인 항만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완적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항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여수 낙포부두 리모델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여수 신복항

사업도 본격화하는 등 여수광양항을 전략적 항만이자 국가의 자산으로서 특별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와 관련해 ”박람회장 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을 위한 정부 예산 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약속이며 앞으로 교육원이 청소년들의 해양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수박람회장에 2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푸른레저개발과 협약 체결

을 추진 중”이라며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 임대 여건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추가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올해 입장객이 이번 주 중 300만명을 돌파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누적 입장객은 18일 기준 298만명이며, 올해 말까지 작년(221만명)보다 40% 늘어난 310만명에 이를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입장객 300만명 돌파 기념으로 오는 21일 박람회장 방문객에게 빅오, 스카이다이, 아쿠아리움 등 7개 주요 관람시설 입장료를 50% 할인해준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박람회장 내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인디밴드 거리공연과 마술쇼가 열린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도 추경예산 6조6432억 의결

전남도의회는 19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년도와 전년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월29일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해당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엔 의결된 전남도도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07억원이 증액된 6조6432억원, 도교육청 예산은 354억원이 증액된 3조3934억원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남도 예산안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원 등 1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 정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강성휘 전남도의원 발의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회 위원장(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9일 전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인권을 침해할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



업 추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등이다. 강성휘 기획사회위원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근로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도에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를 받기 어려워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범위 규정

박철홍 전남도의원 발의

해양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 성장크루즈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박철홍의원(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전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전략,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 유치전략과 연관산업 유치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를 위한 지사 책무를 규정했다. 또 전남도항만을 포함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또는 외국적 크루즈 운항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도 들어 있었다. 박철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주의 전당 광주건립 이행 촉구

유치 추진위, 기념사업회 방문

한국 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 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해 민주주의 전당의 서울·창원·광주 삼각축 건립 이행을 촉구했다. 추진위원회와 시 관계자 등은 양금식 민주화운동 기념관 추진단장, 황재형 추진위원장 등 기념사업회 관계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기념사업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기념사업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거나 경기 의왕시에만 건립하

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원시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추진위원 등은 이후 국회의원을 찾아 윤영호·장병완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면담하고 의왕시 단독 건립을 전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예산 40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주체인 기념사업회는 광주시, 창원시(당시 마산)와 함께 2013년 11월 서울·광주·마산 삼각축 건립에 합의했지만 최근 방침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 개도 여촌체험’ 관광상품으로 흡쇼핑 첫 출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기획한 ‘여수 개도 여촌체험 1박2일’ 상품이 GS 흡쇼핑을 통해 첫 출시됐다. 여수 개도 여촌체험 1박2일 상품은 여촌인 여수 개도에서 가두리낚시, 전복양식장, 통벌체험, 섬 비렁길 등 다양한 체

험으로 꾸며졌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차리는 개도식 밥상(‘삼시네기’로 칭함)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섬지역 저수지에서 바닥 투명한 카약을 타고 저수지의 각종 물고기를 관찰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몰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